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9월 8일(금) (음력 7월 18일) Пятница 8 сентября 2017 г. № 35(11675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한러 우호 증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강제징용 당시를 회상한 사할린 한인 1세 김윤덕 용. (본시기자)

단신

제3회 동방경제포럼, 사할린 전시관 눈길 끌어

제3회 동방경제포럼이 6-7일 이틀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에서 펼쳐졌다. 전통적으로 열린 <극동 거리>에는 각 지역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세워졌는데 언어모양의 사할린 전시관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서 2019년에 사할린에서 개최될 동계아시안 아동게임, <고르너 워스두호> 스키리조트 등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사할린의 언어알, 새우 등 시식도 해볼 수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사할린 전시관을 둘러보기도 했다.

올레그 코제야코 주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사할린주민들이 3일간 일본 방문 시 무비자 방문을 다시 일본 측에 요청했다.

사할린개발공사는 이번 포럼에서 여러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135주년 기념

이번 토요일, 9월 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135주년을 기념하여 이날 수많은 행사들을 펼칠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아침 10시부터는 시민들의 거리행진이 진행되고 레닌광장에서는 기념행사와 공연을 펼친다. 레닌거리, 콤무니스찌체스키 프로스펙트 등에서도 청년이니셔티브센터의 주도로 주제별 행사장, 아트축제, 마라톤, 스포츠 시범과 경기, 시장여행,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전 연령층에게 유익하고 흥미롭고 다채로운 행사장을 연다.

이에 앞서 8일 저녁 8시에는 레닌 광장에서 러시아 인기 가수 스타스 피예하의 공연, 그 뒤 레이저쇼, 9일 8시는 레닌광장에서 가수 안나 로라크 우크라이나 국민 아티스트의 공연 이후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1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은 안산시 대표단이 방문하고 사할린주 중앙도시와 우호교류의향을 밝힌 경기도 광주시 대표단(단장 조억동 시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4일,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 거행

오는 14일(목) 오전 11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에서 한국 행정안전부 주최로 제5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골봉환 추도 및 환송식>이 거행된다. 이미 보도한 바 이번에는 모국으로 유골 14위를 봉환할 예정이다.

<물고기 섬>수산물 요리 축제 개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리는 제3회 <물고기 섬> 수산물 요리 축제가 시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축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13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사할린을 찾은 모스크바, 카잔, 세르비아와 일본 요리 셰프들은 사할린주민들과 자신만의 여러 조리법을 나누었다. 이에 대한 15부문의 마스터클래스가 지난 6일 <메가팔라스>호텔에서 하루 내내 펼쳐졌다. 마스터클래스에는 요리사 외에도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었다. 축제에 참가한 요리사들은 사할린의 해산물만을 재료로 사용했다. 10일에는 레닌광장에서 펼쳐지는 요리 박람회, 시식, 대규모 언어알 푸테르브로드, <물고기>나무 등을 통해 시민들도 요리 축제의 맛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오찬에 사할린 대표단 14명 참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7일(목) <한러 우호 증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에 150여 명의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재외국민과 러시아 인사들을 현대 호텔 연회장으로 모셨다. 문 대통령 내외가 행사장에 들어오기 직전 박순옥 사할린주 한인회 회장, 블라지미르 미클루셴스키 연해주 주지사, 김 니콜라이 연해주 고려인문화자치회 회장과 첫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란 제목으로 진행된 이 간담회는 정말 감동적인 자리였다. 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독립유공자 후손, 재외국민과 러시아 인사들을 환영하며 러시아와 대한민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고려인,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하며 사할린 동포들과 관해서는 강제징용자 유골봉환 사업과 동포들의 모국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날 연해주한인회 이경중 회장은 환영사를 하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대통령님들의 방문이 있었지만 한 번도 간담회가 성사되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지만 이번 문 대통령님의 방문을 계기로 연해주 한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님을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웨.미클루셴스키 연해주 주지사, 김 니콜라이 연해주 고려인문화자치회 회장이 건배사를 올리고 최재형 독립유공자의 손자 최 왈렌진(모스크바), 김 왈레리

아 연해주 고려인문화자치회 부회장, 백경숙 아르세니예브시 한글학교 교장, 강제징용자 사할린 1세 김윤덕 용의 얘기는 특히 인상적이었다. 95세 연세의 김윤덕 용은 강제징용 당시를 회상하며 고향 생각에 빠져 얘기를 멈추지 못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사할린 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이번 초청 오찬에 사할린 한인대표단(1세 동포인 김윤덕/시네고르스크·김종희/마카로브·오철호/토마리,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 주여성회 김웨철 회장, 주한인이중징용광부유가족회 서진길 회장, <무궁화>중창단 김춘경 단장, 한국투자보호협회 회장인 천영곤 <가가린>라이온스클럽 회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립중환 회장, 마카로브한인회 고영순 회장, 코르사코브한인회

이태준 회장, 사할린국립대 임 엘위라 한국 어과 과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대표) 총 14 명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해외에서 동포들을 만나면 늘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뭉클한 마음이 가장 짙은 곳은 여기 러시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에 사시는 동포들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백성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할 때 굶주림에 지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일제시대에 일제의 가혹한 수탈을 피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최재형 선생처럼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고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할린 강제징용자 가운데 % 정도는 다시 일본으로 2차 징용을 당하셨습니다. 또 멀리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그러한 운명 고난 역경 다 이겨내고 곳곳하게 살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또 러시아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후손들을 키워오셨다는 것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더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또 우리 문화, 우리 말을 지켜오셨다는 것"이라며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예를 다 해서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환영사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2면에 계속)

<h2 style="font-size: 24px; margin: 0;">새고려신문</h2>	<h2 style="font-size: 24px; margin: 0;">2017년 신문주문</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오찬에 사할린 대표단 14명 참석

(1면의 계속)

독립운동 후손들에 대해서는 나라가 예를 다해서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해드 테이블에 김정숙 여사 옆에 앉아 계시던 김윤덕 옹은 사할린 한인들을 기억하고 도와달라며 대통령 내외와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김중희 할머니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께 "무사히 돌아가시고 건강히 지내시고 꼭 다시 만나자"고 했다. 사할린 대표단은 대통령 내외와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배정받아 특별히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며, 공식 행사 후 문재인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받았다.

한편, 사할린 한인들은 사전에 준비한 문 대통령에게 드리는 청원서를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영사를 통해 전달했다. (청원서 내용은 아래에 게재).

(본사기자)



제4회 사할린국제군악 오케스트라 축제 펼쳐져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4회 <사할린에 스파스카야 탑> 국제군악오케스트라 축제가 개최된다. 축제에는 10여 개 오케스트라(총 연주자 500여 명)가 출연하는데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아니와, 네웰스크, 홈스크, 토마리, 포로나이스크와 스미르니호에서 멋진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공식 축제개막은 9월 8일 오후 4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영예(슬라와)광장에서 시작하고 4시 30분에는 오케스트라들이 승리(포베다)광장까지 행진하여 공연을 펼친다

9일에 오케스트라들은 지방에서 공연을 하고 10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휴식공원, 체호브센터 소공원, 향토박물관 앞마당, 역광장 등지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10일 저녁 8시에는 레닌광장에서 합동공연으로 축제가 폐막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 희생동포 영령을 위로

지난 1일 (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회관 앞 사할린 동포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제 24회 사할린 동포 희생자 추념 행사가 거행되었다.

추념 사업으로 해마다 사할린을 찾는 80대 중반의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이용택 회장은 이번에도 역시 이 행사에 참석했다.

다른 해외 달리 이번 행사는 별다른 추념발표 없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평일이고, 개학날이어서 적은 수의 사람들



들과 함께 조촐히 보냈다.

먼저 강제동원 희생자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묵념과 제사의식을 치렀다.

행사는 해외희생동포 추념사업회(한국) 주최, 주한인회·주노인회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사할린동포희생자위령비 앞에서 참배가 끝난 뒤 이용택 회장,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인회 김홍지 회장 등은 포자르스스코에 부근에 위치한 27인 한국인피살자 추념비도 찾아가 제사를 올렸다.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 현장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팀을 홈스크한인회 박영순 회장을 비롯한 본회 회원, 김영순 홈스크시의회 의원, 홈스크 <예지나야 러시아>정당 관계자 등이 맞이해 함께 행사를 진행했다.

1945년 8월, 일본인 몇몇이 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해 한인 27명을 학살한 사건.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기에 이번에 주한인회는 사할린주정부 그란트(장려금) 일환으로 이 학살사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날 현장을 제작진이 찾아 촬영에 나섰다.

사할린한인들의 비극은 잊지도, 잊혀져서도 안 된다. 희생동포 영령들을 위로하고 영원한 안식을 비는 의식 또한 차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전수해야 한다고 본다.

(취재: 배순신기자)

청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사할린 한인들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번도 대한민국의 대선이 사할린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추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미해결 문제로 '사할린'을 언급하실 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사할린 한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국가원수가 나타났구나! 모든 사할린 한인이 대통령님의 '사할린' 한 단어에 가슴 깊이 감동 받았습니다.

1938년 5월,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칙령 제316호: 조선, 대만 및 사할린에 대한 시행 건)에 따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치하의 남사할린(북위 50도 이하)으로 4만 3천여 명의 조선의 젊은이들이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군수시설과 탄광, 벌목장,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 현장에서 그들은 피눈물 나는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할린 한인사에는 또 하나의 비극이 있습니다. 1944년 8월 11일 일제의 각의결정에 의해 3천여 명 이상의 광부들이 일본 본토로 전환배치 된 것입니다. 부모와의 이산도 모자라, 처자식과 생이별 해야 했던 그들의 생애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사할린일본인 송환에 관한> 소-일 간 합의(1946.3.16)에 따라 29만 2천여 명의 일본인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인들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버려졌습니다.

한-소 수교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사할린 한인들은 부모와 자식, 친인척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커녕, 소식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부터 시행된 '영주귀국사업'으로 그나마 4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귀환했고, 현재 한국 내 2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주귀국사업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대들은 또 다시 자녀와 가족들을 사할린에 남겨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잔인한 귀환정책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지난 아픈 역사를 보듬어 주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반쪽자리 조치에 불과하며, 국제적 차원에서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에 잔류한 570여 명의 1세대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의 해결은 시급합니다. 사할린 한인인 대한민국의 역사적 비극의 한 장입니다.

현재 사할린에는 그 역사의 피해자와 그들의 자손이 2만 6천여 명 살고 있습니다. 사할린 인구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민족이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도 많은 한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 같은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사할린 한인 1세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 손자, 증손자를 대표하여 바랍니다. 희망과 믿음을 품고,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박순옥

이모저모

사할린주, 남성 사망률이 여성보다 4.4 배 더 높다

올해 사할린주에 1월부터 6월까지 사망자 3063 명이 등록되었는데 그중 26,9%(823명)는 아직 근로 능력 있는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망자의 사망 구성요인을 조사해 보면 여러 원인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망원인은 외부적 원인(사고, 부상)이 30,3%에 달했고 두 번째는 순환기질환으로 사망률은 19,8%다. 소화기질환 사망은 16,3%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되었으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중앙 사망률은 12,9%로 나타났다.

성별로 따지면 근로 능력자의 사망률은 많이 다르다. 사망자 대부분이 남성(81,5%)으로 남성 사망률은 여성 사망률보다 4,4배 더 높은 것으로 사할린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Мужская смертность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4,4 раза выше женской

За январь-июнь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3063 человека умерших, из них 26,9% умерли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823 человека).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структуры смер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по причинам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ряд особенностей. Характерной чертой явля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ая доля смертей от внешних причин смерти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отравлений и травм) — 30,3%.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мертность от болезней системы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 19,8%. Смертность от болезней органов пищеварения за первое полугодие занимает третье место — 16,3%.

Отмечается снижение смертности от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Доля умерших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в трудоспособном возрасте составила 12,9%.

Имеются значительные половые различия в смертности лиц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Подав-

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умерших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ужского пола — 81,5%, то есть уровень мужской смертности в 4,4 раза выше уровня женско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크로스 나치이 2017> 육상대회 9월 16일에 진행할 계획

올해 전국 <국가 크로스(크로스 나치이) 2017> 대중육상경기대회를 9월 16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해마다 주중양도시에서 개최되는 대규모의 대중육상 행사에는 약 2000여 명이 모여들고 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참가자들은 약 25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달리기 코스는 전과 같이 아동들을 위한 코스 1km 부터, 숙련된 육상선수들을 위한 12km까지로 변경했다. <국가 크로스>진행 경험상 무난한 코스는 4 km로 전통적으로 이 코스에는 1500여 명이 지원하고 있다. 특이사항 하나는 통과 경로도가 변경된 점이다.

(8면에 계속)

이혜미 가수, 15년간 사할린 사랑을 노래로

지난 3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한국의 이혜미 인기 가수가 준비한 음악회가 열렸다. 사할린주 설립 70주년, 한국·사할린문화교류 15주년 기념행사에 300여 명의 관객이 모였다.

이혜미 가수는 2002년 KBS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한 사할린한민족노래자랑 행사에 초대 가수로 처음 사할린을 방문했다. 그동안 사할린에서 한민족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사할린과 대한민국에서 30회 이상 자선 콘서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혜미 가수는 자선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금을 장애아 치료비로 또는 한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1세대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사할린 우리말방송(국장 김춘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연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혜미 가수는 사할린과 한국 문화교류, 동포들을 위한 활동으로 사할린주 정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사할린주한인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축사를 한 사할린주정부 민족정책국 드미트리 루긴 국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의 딸> 불리우는 이혜미 가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할린 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이번 공연을 지원하는 한국사업가팀을 대표한 고려대학교 박태우 교수도 역시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이혜미 가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날 화려한 의상을 한 이혜미 트로트 가수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히트곡, <'고향열차', <열애>등 가요와 <새타령>, <성주풀이>등 민요를 불러 환호를 받았다.

이혜미 가수는 이날 눈시울을 보이며 사할린 사랑 고백을 하고 '앞으로 계속 힘 닿는 데까지 사할린동포들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할린주 설립 70주년, 동포 문화사랑 15주년>이란 제목의 콘서트에는 이혜미 가수 외에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스타 노래 강사인 양주호 가수(한국)와 모스크바 국제콩쿠르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별거리>타악기팀과 <개나리>무용



단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공연 진행에 개그맨 박세민이 사회를 봤다. 특히 양주호 가수의 출연은 사할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실 5000여 명의 제자를 둔 양 가수는 이혜미 가수의 부탁으로 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제자들 중에서 모금운동을 하며 봉사활동을 펼친 바가 있다. 사할린동포

들을 응원하고 걱정하는 그의 제자 6명은 사할린까지 양 강사를 따라 오기도 했다. 이날 2시간 이상의 공연은 출연자, 한국사업가대표들과 사할린 한인사회계 대표들이 함께 <진도 아리랑> 부르며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사할린주한인회와 우리말방송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동포소식

마카로브, 광복절 행사 기념

지난 2일(토) 마카로브 한인회는 주한인회 후원으로 인근 바닷가에서 광복절 행사를 가졌다.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 회장에 따르면 본회 회원들은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마당에서 맛있는 상차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행사에는 약 40명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에게 선물도 증정했다.



돌린스크, <한 가정에서>행사 열려

지난 3일(일) 돌린스크시 문화회관에서 <한 가정에서>란 주한인회 기획의 일환으로 공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 1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팀, <아리랑>무용단, 강팔용 가수와 윤민자 가수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명절 기분을 한껏 안겨주었다.

돌린스크한인회 회장은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에 기쁨을 표하며 돌린스크문화회관의 <에스트라다> 보컬스튜디오, 피아노·색스폰 연주, 아동음악 학교 학생들, <브라보>무용단 등과 유즈노사할린스크 아티스트들과도 함께 공연을 하여 <한 가정에서>란 행사는 커다란 의미를 주었다고 강조했다.

정순덕, 시의회 표창장 수여



지난 4일(월) 사할린인문기술대학에서 주한인여성회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나탈리아 즈다카예와 두마의 원은 적극적 사회활동, 문화교류발전에 대한 업적으로 본 대학의 정순덕 부총장에게 시의회 표창장을 수여했다. 주한인여성회의 추천으로 상을 받은 정 부총장은 여성회와 시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했다.

9월 10일, 주한인회 상 미니 축구시합 개최

9월 1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한인회의 주최로 미니 축구시합이 있을 예정이다. 경기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아니와 등지에서 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몇몇 팀은 지방 행사 때문에 불참을 전해왔다. 주한인회 측에 따르면 경기에서 1등 상금은 3만 루블리, 2등은 2만 루블리, 3등은 1만 루블리라고 알렸다.

(배순신기자)
(해당단체 제공)

재외동포재단 장학생들, 모국 바르게 알기 위해 모였다 '2017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체험' 시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이 9월 1일부터 3일까지 호남 일대를 돌며 '2017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역사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국내에서 수학 중인 52개국 200여 명의 재외동포 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장학생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북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오목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생태자연공원, 광주 5.18 민주광장,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하고, '생명의 물줄기 그리고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광주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하여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플래쉬몹 퍼포먼스를 진

행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거주국을 떠나 모국에서 수학하는 유학생들의 고충 상담과 선후배 간 우의를 돈독하게 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지역 출신 학생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지역 리더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지역리더상' 시상도 시행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모국의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우수 인재들이 모국에서의 공부를 잘 마치고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7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а с россий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и гражданами РК.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обед с президентом получили и 14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прессы.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ну Мун Чжэ Ин

Президенту Мун Чжэ Ину от лиц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о передано письмо, текст которого публикуем ниже.

Глубокоуважаемы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Позвольте за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Вам свое почтение и обратиться к Вам по судьбоносному вопрос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никогда не подумали бы, что избрание Вас презид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снется, каким-то образом, на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 когда мы услышали Ваше выступление с празднованием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где Вы упомянули Сахалин, и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решать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ей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аннексии, мы поняли, что появил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по-настоящему сдвинуть с мест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Мы были тронуты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На основании Указа японского императора за № 316 от 4 мая 1938 года «Об исполнении Закона о всеобщей мобилизации», с 1939 года по 1945 год,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 Южный Сахалин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насильственно были завезены более 43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для принуд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угольных шахтах и на лесозаготовках. Завезенные под ружейным конвоем, они сполна испытали на себе подневольный, кровавый каторжный труд и физические истязания японской военщины.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есть и еще одна трагическая страница, более 3 тысяч шахтеров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Японии от 11 августа 1944 года были вторично насильственно вывезены в угольные префектуры Японии, и их судьбы до сих пор не известн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согласно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между СССР и Японией от 16 марта 1946 года «О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японцев» с Сахалина с 1946 года по 1949 год выехало 292 тысяч японцев, корейцев же бросили на произвол судьбы.

Почти полвека, до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е имели ник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одителями, детьми,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но даже получать известия друг о друге.

С 1992 года более 4 тысяч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могли выехать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они проживают в 25 районах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о, к сожалению, репатриация породила новую проблему. Вернувшись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вновь разлучились с деть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оставшимися на Сахалине.

Нигде в мире нет такой уродливой формы репатриации.

На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кладывает усилия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Мы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воспринимаем эти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начало искупления перенесенных страда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 жизнь убеждает, что все это полумеры, 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проблемы в целом не решаются.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преклонный возраст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торых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та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не более 570 человек, необходимо ускорить решение данного вопроса.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трагическая страница в истории Коре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т около 26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бывших японских подданных, и их потомки.

Сегодня мы с гордостью 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корейцы, являясь второй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ость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или признание, как трудолюбивый народ. Многие достигли успехов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образование, культура, экономика, бизнес и т.д. Благодаря дел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в регионе налажены тесные связи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только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но и их детей, внуков и даже правнуков.

Обращаюсь с надеждой и верой, что мы будем услышаны.

Мы верим в торжество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и гуманизма.

Мы не должны быть дальше заложниками несогласованной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необходимо как можно быстрее решить наболевшие вопросы, вед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уже далеко за 80 лет.

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еобходимо *принятие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его посемейную репатриац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с принятием правовой базы Парламент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Мун Чжэ Ин, мы просим Вас ускорить решение следующих вопросов:

Выплата компенсаций за моральный и материальный ущерб, нанесенный Японией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1-го поколения, оставшимся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Выплата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мощи признанным пострадавшими или их наследникам, не имеющим право получить данную помощь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граждан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почтовых сбережений (насильствен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ходящихся на счетах японских банков, и передача этих средств для выплаты компенсации пострадавшим лицам, их семьям и потомкам.

Передача списков корейцев, подвергшихся двойной вербовке (во исполнения решения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Японии от 11 августа 1944 год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этническим корейцам,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держка в сохранении и развит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ультуры и традиций для 3-го, 4-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А также просим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постро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узе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ем самым Вы поможете сохранить нашу историю и передать ее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Мы верим и надеем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ши проблемы при Вашем участии будут решены.

Мы гордим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науч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стран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это наша мечта. Ведь м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никто другой, знаем и понимаем боль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егодня нам очень важно, ч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готова нас поддержать. Так же, как и мы готовы укреплять связи с родной предков.

С пожеланиями доброго здоровья, успехов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любви и признания нар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здравил призера первенства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Георгия Боровикова

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здравил призера первенства мира среди кадетов по тхэквондо WTF. Серебряную медаль учащийся отделения тхэквонд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СДЮСШО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14-летний Георгий Боровиков завоевал в августе на турнир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египетском Шарм-эш-Шейхе.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дробно расспросил Георгия и его тренеров Дениса Кима и Надежду Сон о том пути, который они все вместе проделали,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таких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 это первая медаль по тхэквондо у Сахалина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Тренер Денис Ким рассказал, что Георгий занимается тхэквондо уже пять лет. Шансы на победу были велики. До этого юноша выиграл в свое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ряд турниров и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среди кадетов в Белгороде, за что и получил путевку на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 Когда в Шарм-эш-Шейхе меня ребята спрашивали, а что такое Сахалин и где он находится, я показывал на карте, и они удивлялись, что он так далеко, да еще и в Азии, а не в Европе. Еще больше они удивились, когда я стал призером, — шутит Георгий. — Я ощущаю гордость за себя, за своих тренеров, за семью и за весь наш регион. Дальше у меня в планах перейти в категорию юниоров, снова выиграть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и поехать на первенство мира.

Мэр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здравил спортсмена с победой и пожелал ему дальнейших успехов, а также вручил памятные часы с герб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благодарил наставников и адресовал теплые слова родителям, поскольку у них всегда особая роль в становлении характера будущих победителей.

— Если у нас появляются звездочки, их нуж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чтобы были люди, которые побеждают на круп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едь они не только добиваются личных успехов, но и славят наш город. Поэтому мы всегда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им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 обратился мэр к Георгию и тренерам.

В частности, мэр поручил управлению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проработать вопрос увелич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ощади для занятий тхэквондо, сооб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пресс-службу мэрии.

На турнире российская команда была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В ее состав вош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анивчанин Владислав Ким (тренер Н.Хон). Несмотря на юниорский возраст и отсутствие опыта выступлен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ий самбист, победив в тре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схватках, смог пробиться в финальную часть турнира. В решающей схватке сахалинец со счетом 4:1 уступил своему более опытному сопернику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стал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62 кг. Всего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15 медалей, из них 4 — золоты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уже не первый успех сахалинских самбист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рсаковец Александр Цой на этом же турнире стал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а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натолий Югай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мирных иг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сообщает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ец Владислав Ким завоевал серебр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по самбо в Южной Корее

1-4 сентябр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Донгхэ прошел круп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Кубок презид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федерации самбо (FIAS)". Соревнования являются традиционными, проводятся в третий раз и имеют статус официаль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турнира категории Б.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20 самбистов из 12 стран. Медали были разыграны в спортивном самбо среди мужчин и женщин, а также в боевом самбо. Высокий престиж турнира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участием в нем чемпионов и призеров чемпионатов мира и Европы, обладателей кубка мира, которые ведут подготовку к мировому чемпионату в Сочи.

На турнире российская команда была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В ее состав вошли спортсмены из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Туль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орского и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анивчанин Владислав Ким (тренер Н.Хон). Несмотря на юниорский возраст и отсутствие опыта выступлени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ий самбист, победив в трех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схватках, смог пробиться в финальную часть турнира. В решающей схватке сахалинец со счетом 4:1 уступил своему более опытному сопернику из Узбекистана и стал серебряным призером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62 кг. Всего росси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15 медалей, из них 4 — золотые.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уже не первый успех сахалинских самбистов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корсаковец Александр Цой на этом же турнире стал бронзовым призером, а южносахалинец Анатолий Югай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мирных игр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сообщает федерация самб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ы РК и России высказались за немедленное решение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хеньяна

В среду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 рамках 3-го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состоялся южно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саммит.



Президенты двух стран Мун Чжэ Ин 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вели его итоги на совмест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ак от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согласились с тем, что решение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хеньяна – неотложная задача.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из-за неоднократн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овокаций глобаль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существенно осложнилась. Она может пойти по неконтролируемому пути, если Север не прекратит свои провокации.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работать вместе, чтобы найти пути для коре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Россия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буд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качестве ядерной державы. Говоря о шестом ядерном испытании, проведённо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росси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сказал, что данная провокация нарушила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Он повторил свою прежнюю позицию, что санкции и давление не смогут реши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Пхеньяна, высказавшись за поиск путей возобновления диалога с Севером. Мун Чжэ Ин попросил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омочь в усилении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с помощью санкций, хотя бы сократив поставки нефти на Север. Однако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ыразил беспокойство тем, что данный шаг может нанести ущерб простым северокорейцам.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Россия поставляет на Север всего лишь около 40 тысяч тонн нефти в год.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отметили, что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достигну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партнеров России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Та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товарооборот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ырос почти на 50% и составил 10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России работают около 60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я в российскую экономику превышают 2 млрд долларов.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об успешном испытании водородного боезаряда

Пхеньян сообщил в воскресенье об успешном испытании водородного боезаряда, который может быть установлен н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ую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одтвердила проведение шестого по счету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В тот же день в 12:29 кор.вр.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айоне деревни Пхунге-ри уезда Кильчжу-гун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Пукто, где расположен ядерный полигон, зафиксировано землетрясение магнитудой 5,7.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й метеорологиче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но имеет искусственно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На этом основа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высказа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землетрясение спровоцировано подземным ядерным испытанием. В 12:38 кор.вр. Китайский сейсмологический центр зафиксировал в район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яд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второй толчок магнитудой 4,6. Полагают, что он мог стать причиной обвала грунта, вызванного первым толчко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землетрясении,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созвал чрезвычайное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сообщили об окончании работы над водородным боезарядом, который достаточно компактен для установки н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ую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В этой связ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заговорили о «красной линии», которую,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Север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должен пересечь.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 случаю ста дней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Мун Чжэ Ин указывал, что «красной линией» в провокациях Севера является установка ядерной боеголовки на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ую баллистическую ракету.

(RKI)

«К выселению приступить немедленно...» История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рейцы прожили на наш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ва раза по 37 — тридцать семь лет в XIX столетии и столько же в XX веке. О том, как выходцы с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явились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землях России, как пережили там многие изломы отечественной истории и почему 80 лет назад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покинуть Приморье и Приамурье специально для DV расскажет историк **Алексей Волынец**.



«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м русских законов...»

Первое официальное известие о появлении корейцев на российских землях датировано 30 ноября 1863 года — начальник Новгородского поста поручик Василий Резанов обратился с рапортом к военному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Петру Казакевичу. Поручик докладывал, что два десятка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просят разрешения поселиться в долине реки Тизинхе неподалёку от русского пограничного поста.

Ныне Тизинхе — это река Виноградная в Хасанском районе на самом юг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До границы Китая отсюда всего десяток километров, а до Кореи — не более сорока. Просивший за корейцев 154 года назад поручик Василий Резанов командовал ротой 3-го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линейного батальона — именно эта пограничная часть з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до описываемых событий основала Благовещенск и Хабаровск, пережив немало страшных трудностей во время освоения берегов Амура.

В 1863 году не прошло и трёх лет, как земли Приморья по договору с китайской империей Цин отошли к нашей стране. Русских поселений, кроме редких пограничных постов, здесь ещё не было — и корейским поселенцам предстояло стать первыми гражданскими обитателями этого дальне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Поручик Резанов 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у Казакевичу, что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уже построили на берегу Тизинхе шесть «фанз» — традиционные для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рестьянские избышки из соломы — и просят русские власти отправить к месту их поселения хотя бы пять солдат для защиты от китайских бандитов-«хунхуз», которые грабят и убивают корейцев. Если Россия обеспечит их безопасность, передавал Василий Резанов слова корейских старейшин, то множество их родичей готовы переселяться на новые земли.

Первый губернатор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тр-адмирал Пётр Казакевич ранее немало сделал для освоения Приамурья, столь же деятельно отнёсся он и к закреплению Уссурийского края. Губернатор разрешил корейским крестьянам селиться на новых землях России и приказал поручику Резанову принять «самые энергичные меры к ограждению их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покойствия», чтобы переселившиеся «мог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полностью свободой и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м русских законов».

Уже в январе 1864 года недалеко от Новгородского поста (ныне посёлок Посыет в Хасанском район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озникло первое корейское поселе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С берегов речки Тизинхе губернатору Приморской области отправилось сообщение: «14 семей в числе 65 душ обоего пола перешли из Кореи в январе месяце сего года в Примор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троили фанзы в верстах 15 от поста Новгородского, успешно занимаются огородничеством, земледелием и обещают по своему трудолюбию быть вполне полезными хозяевами».

Первое корейское селение на наше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фициально назвали «слободой Резаново» — в честь поручика Василия Резанова, оказавшего по-

мощь беженцам из Кореи. Весной 1864 года здесь появились первые огороды, окрестные поля засеяли ячменем, гречихой и кукурузой. Летом в «слободой Резаново» проживало уже 30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берега Тизинхе переселилось ещё 65 семейств, почти четыре сотни крестьян.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становилось массовым: на их родине в то время свирепствовал голод, на новых же землях переселенцам не только обеспечивали не только защиту, но и предоставляли внушительные льготы.

«Уличенных в желании эмигрировать пытали и казнили...»

В середине XIX века Китай и Япония вполне справедливо считались отстал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о Корея, управлявшаяся королями-«ванами», вассалами правивших в Пекине маньчжурских императоров, выглядела

отсталой даже на фоне своих азиатских соседей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Жизнь в «Стране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оставалась абсолютно средневековой и феодальной, как будто застыл на несколько веков.

Разнообразие в течение времени вносили лишь природные катаклизмы, нередкие именно на север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Летом 1864 года сильные дожди не дали созреть хлебу, а ранние заморозки осенью окончательно погубили урожай, начался массовый голод. Не прошло и пяти лет, как из-за сильного наводнения голод повторился. Крестьяне, обитавшие в северных провинциях Кореи, спасая свои жизни, бежали в ставшее российским Приморье, где было много свободной зем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чтобы быстрее заселить обширные и почти безлюдные земли на Амуре и в Приморье, предоставляло внушительные льготы всем будущим колонистам, как русским, так и иностранцам. Переселенцы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али сотню гектаров на семью и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налогов. Не 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подгоняемые голодом крестьяне из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быстро оказались самым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среди переселенцев в новый край России.

Только в июле-декабре 1869 года в Приморье, где в то время обитало менее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ереселилось более шести тысяч корейцев. Если российские власти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ереселенцев, то власть феодальной Кореи всячески пыталась их запретить. Корейские солдаты устраивали настоящие облавы на беглецов, расстреливая их из луков: армия отстал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тоже оставалась полностью средневековой. По словам российских очевидцев, после 1869 года на берегах пограничной реки Тумен-улы (ныне Туманная) ещё долго валялись трупы и обглоданные кости убитых.

Чиновник по особым поручениям при генерал-губернаторе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брат первого губернатора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Фёдор Буссе в то время писал: «Уличенных в желании эмигрировать из Кореи пытали и казнили; партии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еследовались войсками; их грабили и убивали; но народ, узнав, что сородичи живут под охраной русских законов и быстро достигают довольства,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ся перед опасностью побег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сточник:

<https://dv.land/history/k-vyseleniyu-pristupit-nemedlenno>

Гран-при седьм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получил фильм «Аритмия» Бориса Хлебникова

Итоги кинофорума, на неделю приковавшего к себе внимание островн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двели в ходе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в зале Чехов-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увидели более 60 фильмов. Были среди них и восемь лент, созданных островным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ами.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Край света» дал толчок развитию искусства кино в регионе. И уже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созданные в области картины включаются в программу фестиваля. На этот раз по итогам зритель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мэрией Южно-Сахалина, лучшей среди работ островны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признана лента «В объятиях моря» режиссера Дмитрия Моисеева.

Конкурсна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девять картин. Это «Аритмия» (режиссер Борис Хлебников, Россия – Финляндия – Германия), «Заложники» (Резо Гигинеишвили, Россия – Грузия – Польша), «Сеть» (Ким Ки Дук, Южная Корея), «Молитва перед рассветом» (Жан-Стефан Совер, Франция –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Как Витька Чеснок вез Леху Штыря в дом инвалидов» (Александр Хант, Россия), «Слава» (Кристина Грозева, Петр Вылчанов, Болгария – Греция),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Гастон Дюпра, Мариано Кон, Аргентина – Испания), «Наше бегство» (Нобутеру Учида, Япония), и «Женщина со льдом» (Богдан Слама, Чехия – Словакия – Франц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ое жюри отметил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изом за лучшую комедию о жизни в искусстве фильм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Награды за режиссуру удостоен создатель ленты «Заложники» Резо Гигинеишвили.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лучшей женской роли – Зузана Кронерова («Женщина со льдом»). Приз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вручен исполнителю главной роли в фильме «Аритмия» Александру Яценко. За то, что заставил наши сердца биться неровно, пояснили своё решение члены жюри.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награда –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 был вручен режиссеру «Аритмии» Борису Хлебникову.

Как отмет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и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 это не только культурное событие, но и важный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кт. То, что задумывалось в самом начале - семь лет назад, стало реально воплощаться в жизнь. Одной из смелых идей было создание на Сахалине собственной киноиндустрии. Наши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ы должны получа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чтоб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планы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 Поддерживаем идею о создании островного кинофонда. Активно идет расширение киносети. В 2017 году открылось сразу три кинотеатра: в Томари, Тымовском и Невель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овать такие учреждения на севере Сахалина - в Охе и Ногликах. Возможно, вскоре и жители отдал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не покидая своих городов и сел, стать зрителями и участниками 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Важно, что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продолжат работать 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кинофорума. В марте 2018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ется 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 Автобиография».

Восьмой по счету Саха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рай света» состоится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ущен в опытную эксплуатацию сегмент системы обеспечения вызовов экстренных оперативных служб по единому номеру «112»

Жител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совершив звонок со стационарного телефона или с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одключенного к сети «Теле2». Постепенно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ершать звонки по номеру «112» появится и у абонентов остальных операторов сотовой связи, обслуживающих Южно-Сахалинск. А с 2018 года Система 112 охватит вес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оздающаяся в стра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истема «112» объединяет на основе современных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дежурно-диспетчерс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экстренных оперативных служб -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реагирования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полиции, скор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газовой сети, «Антитеррор». Это позволяет им быстрее и точнее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катастрофы природного и техног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угрозы терро-

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В результате внедрения Системы 112 существенно сократится срок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Алгоритм работы следующий. Например, попавший в беду или ставший свидетелем происшествия человек набирает на своем мобильном телефоне номер «112». Для соединения с центром обработки вызовов ему не нужны средства на счете и даже сим-карта. Прошедший специ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диспетчер примет звонок, выяснит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лучившегося и тут же отправит к месту событий необходимые службы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напрямую зависит от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еханизма экстрен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возникающие угрозы, - сказа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защиты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нна Михеева. - Выбор группы реагирования, ее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 правильное оснащени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партнерскими группами реагирования – все это имеет решающее значение в кр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Именно эту роль и берут на себя диспетчеры центра обработки вызовов.

В центре обработки вызовов размещено 10 серверов – пять основных и пять дублирующих, ч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бесперебойную работу, и друго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вяз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автономные источники питания.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несения службы, обеспечения круглосуто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персонала дежурной смены. В ее составе шесть операторов, обеспечивающих прием и первичную обработку поступающих сообщений, два психолога, старший оператор и один системный администратор.

Товарно-молочная ферма на Сахалине названа образцом российско- белорус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троящимся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м комплексом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кануне ознакомился прибывший в область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госсекретарь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Григорий Рапота.

Здесь при участии партнер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возводится молочно-товарная ферма на тысячу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Будущие коровники - это конструкции с оптимальным микроклиматом и безопасными полами с антискользким покрытием. Содержание коров будет беспривязным, а процесс доения - автоматическим. При выходе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ферма будет ежегодно давать Сахалину более 7 тысяч тонн молока и 200 тонн мяса.

Властя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дан правильный курс по развитию мясомолоч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еследуется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региона. Это станет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введению в строй таки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ских прилавках появится больше свежего, не привозного, молока и мяса, качественного и доступного по цене, - отметил, осматривая объект сахалинский сенатор Дмитрий Мезенцев.

Неподалеку от будущ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расположен агрогородок на 50 частных монолитных домов с приусадебными участками. Проживать здесь будут работники фермы.

Данный аграрный проект уже получил высокие оценки глав двух стран -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Александра Лукашенко. И я очень рад увидеть его собственными глазами. Могу сказать прямо: «Товарно-молочная ферма на Сахалине - образец российско-белорус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дорово, что здесь используется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когда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производства, сразу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обеспечения кадров жильем. Дома просторны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а вокруг прекрасный вид на природу. Уверен, что работникам фермы здесь будет комфортно жить и трудиться, - поделился мнением Григорий Рапо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власти сообщили, что тес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что в будущем специалисты из Беларуси приедут на ферму работать и помогут готовить сахалинские кадры.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связи с 70-летием региона, уже получили свыше 164 тысячи пенсионеров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к юбилею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получают автоматически на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получа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ее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через почтовые отделения, а также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где проживают пенсионеры.

Еще одну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денежную выплату в связи с юбилеем области в размере 2500 рублей уже

получили более 25 тысяч детей войны, а также более 22 тысяч ветеранов труда и более 5 тысяч ветеранов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анной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ы в размере 2,5 тысяч рублей неработающим пенсионерам - ветеранам труда и ветеранам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с заявлением в отде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и предостави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кет документов. Пенсионерам, отнесенным к категории детей войны, данная выплат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беззаяв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для ее получения - постоя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ясн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лена Касьянова.

Она добавила, что для получателей, относящихся к категории дети войны и имеющих звание "Ветеран труда" и (или) "Ветеран тру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щая сумма выплат составит 5000 рублей. Получить выплату можно до 20 декабр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огнала Москву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о объемам прямых иностраннх инвестиций

Эти данные обнародовал в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его сведения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по показателям потенциал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прос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и прибыль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данным платежного баланс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17 года объем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в России составил 4,646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вырос в 72 раза. При этом в Москве наблюдался отток инвестиций.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разница между притоком и оттоком инвестиций из-за границы оказалась положительной, она составила 114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данным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сальдо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ило 2,15 миллиарда долларов. Это практически эквивалентно чистым инвестициям в вес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отметили аналитики главного финансового учреждения страны.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6 годом вложения выросли на 218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В основном, эти средства вкладываются в рамках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1» и «Сахалин-2»,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лексей Белик. - Среди инвесторов - компании ExxonMobil, ONGC, SODECO, Shell, Mitsui и Mitsubishi. Разработка месторождений углеводородов ведется на основе соглашений о разделе продукции. Эти проекты реализуются успешно. В их рамках, несмотря на введение санкций против России,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и модернизируются существующ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Дл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здается благоприятный режим, отмети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а Сахали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еализуются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в составе двух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ОСЭР) - «Южная» (направление -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и «Горный воздух» (туризм). На днях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митрий Медведев подписа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создании третьей ТОСЭР - «Курилы». Основн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 добыча и переработка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ву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ов - действует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В рамках ТОСЭР и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для субъекто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дусмотрены льготные налоговые условия, - заметил Алексей Белик.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ни органично дополняю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и мерами поддержки. В частности, инвесторам компенсируются в той или иной мере затраты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вновь возведенных объектов к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процентные ставки по кредитам, полученным в российских финансовых учреждениях. А также лизинговые платежи,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и приобрете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ля России такой набор мер 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с финансовым обеспечением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ы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각 참가자들에게는 코스 통과 시간이 입력될 전자칩이 주어진다.

대중 육상경기에는 연령과는 관계없이 아마추어들이나 선수들의 참가가 가능하다. 올해도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코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대중육상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신청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개인별이나 단체별로 할 수 있다.

등록과 배번호교부는 9월 11일부터 시작된다고 사할린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Кросс нации — 2017"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16 сентября

В этом году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 — 2017"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16 сентября. Ежегодн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это массовое и масштабное спортив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ирает около 2000 участников.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 этом году ожидается 2500 человек.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на оргкомитете, дистанции останутся прежними и буду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от 1 км для детей, до 12 км для опытных легкоатлетов.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ика проведения "Кросса нации", самой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станет дистанция 4 км, на нее традиционно заявляется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изменится, — это схема прохождения маршрута.

У каждого участника будет электронный чип, который будет фиксировать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дистанци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совом забеге смогут как любители, так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 старт выйдут спортсмены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для них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а отдельная дистанция.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самого массовог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забега, необходимо получить справку от врача с допуском и заполнить заявку. Она может быть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ая, так и коллектив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и выдача номеров начнется 11 сентябр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사진전 대상작 '어린이 민속큰잔치' 선정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은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세계 속의 한국의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어린이 민속큰잔치'를 선정했다.

재외동포사진 공모전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과 재외동포사회를 국내에 소개하고, 내국인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대상작인 '어린이 민속큰잔치'는 미국의 김창종씨가 출품한 작품으로, 미국 뉴욕에서 매년 5월 열리는 어린이 민속큰잔치에서 우리나라 어린이와 외국 어린이가 함께 공굴리기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사진은 밝고 건강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통해 세계 각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재외동포의 희망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한복을 입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주국 현지인들과 당당하게 걷는 재외동포들의 모습을 담은 미국 최병환 씨의 '태극기 휘날리며'가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 세계 26개국 100명의 동포가 모두 406점을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의 취지에 맞게 과장 없이 자연스러운 재외동포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들이 많아지고 참가국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진 속 등장인물들이 이민 3-4세대로 젊어지고 재외동포 가정의 정착 히스토리를 담았다는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총평했다.

심사는 김녕만 월간사진예술 고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진티나 대표, 황중건 포토데스크 대표가 맡았다. 수상작을 포함한 90여점 작품과 고려인 정주 80주년 계기 기록사진전 및 정성태 작가 특별전 등 총 150여점은 오는 9월 27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시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빅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